

미 증시, 실물 경제지표 둔화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연준에 이어 ECB와 BOE도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 출발. 특히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위축되고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 특히 소매판매가 거의 모든 품목이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자 대부분의 종목군이 하락하는 등 매물이 더욱 확대. 결국 미 증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침체 우려 표명과 미, 중 실물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다우 -2.25%, 나스닥 -3.23%, S&P500 -2.49%, 러셀2000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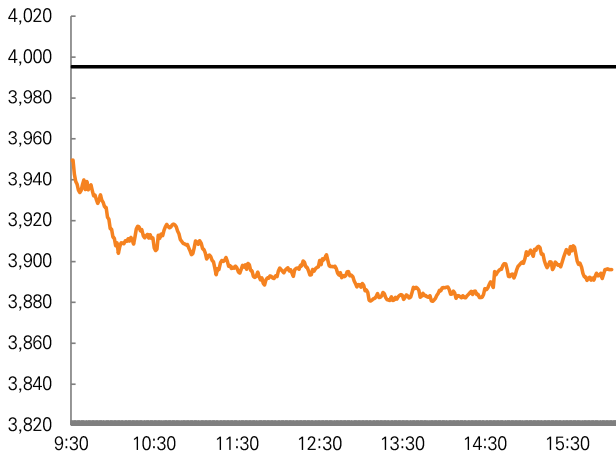
특징 종목

- 테슬라(+0.55%)는 머스크의 지분 매각 소식 등에도 최근 낙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하는 등 여타 기업들과 달리 견조한 모습을 보임. 특히 주요 기관들의 지분이 이번 하락시기 증가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요인. 알리바바(-5.17%), 핀둬둬(-3.18%)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감사 감시단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얻었다는 소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글로벌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하락. 웨스턴 디지털(-10.10%)은 골드만삭스가 매도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으며, 거시 경제 위축을 감안 원가 이하로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이크론(-4.67%)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4.33%, MSCI 신흥 지수 ETF는 2.3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2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47% 하락. KOSPI는 1%대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중국에 이어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둔화되자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며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ECB와 BOE도 경기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더욱 확산돼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다만,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시장의 신뢰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권을 미국 감사 감시단이 얻어 상장폐지 위험이 축소된 점, 옐런 재무장관과 주미 중국 대사가 글로벌 경제 발전을 논의한 점은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대 하락 출발 후 중국 증시가 견조할 경우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 지수명 | Close | D-1(%) | 지수명 | Close | D-1(%) |
|---------|-----------|--------|----------|-----------|--------|
| KOSPI | 2,360.97 | -1.60 | 상해종합 | 3,168.65 | -0.25 |
| KOSDAQ | 722.68 | -0.87 | 홍콩항셱 | 19,368.59 | -1.55 |
| DOW | 33,202.22 | -2.25 | 베트남 | 1,055.32 | +0.47 |
| NASDAQ | 10,810.53 | -3.23 | 유로스톡스 50 | 3,835.70 | -3.51 |
| S&P 500 | 3,895.75 | -2.49 | 영국 | 7,426.17 | -0.93 |
| 캐나다 | 19,600.63 | -1.46 | 독일 | 13,986.23 | -3.28 |
| 일본 | 28,051.70 | -0.37 | 프랑스 | 6,522.77 | -3.09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미,중 실물 경제지표와 경기 침체 그리고 중앙은행

중국 11월 산업생산이 지난달 발표된 5.0%나 예상치인 3.7%를 하회한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쳤고, 고정자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가 9.8% 감소해 지난달 발표된 5.8%나 예상치인 5.6%를 하회한 5.3% 증가에 그침. 특히 소매판매는 지난달 발표된 0.5% 감소나 예상치인 2.5% 감소를 크게 하회한 5.9% 감소로 발표. 대체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대내외 수요가 동반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미국의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지난달 발표된 1.3% 증가나 예상치인 0.2% 감소를 하회. 운송과 가솔린 제외 수치도 0.8% 증가에서 0.2% 감소로 발표.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지난달 발표된 0.1% 감소나 예상치인 0.1% 증가를 하회했으며, 공장 가동률도 79.9%에서 79.7%로 둔화.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부품이 1.6% 증가에서 2.3% 감소로, 전자제품이 0.9% 감소에서 1.5% 감소로 백화점 또한 2.5% 감소에 이어 2.9% 감소로 이어지는 등 소비 둔화가 진행.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거의 모든 품목이 전월 대비 감소하는 경향. 산업생산도 0.2% 감소해 지속적인 둔화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재가 0.7% 증가에서 0.4% 감소로, 제조업 생산도 0.3% 증가에서 0.6%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기 둔화를 자극.

그런 가운데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23.1만 건이나 예상치인 23만 건을 하회한 21.1만 건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줌.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시장의 견고함으로 인플레이션 제어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점을 감안 이러한 고용지표 결과는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 더 나아가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행보가 경기에 부담을 줘 경기 침체 이슈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물 경제지표 결과를 통해 부각. 이 여파로 주식시장은 거의 대부분 종목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내며 하락했으며, 달러화는 실물 지표 발표 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 전환 후 그 폭을 확대. 금리는 경기를 이여 기하는 장기물이 하락한 반면 단기물은 상승. 결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행보에 대한 부담 속 경기 침체 이슈가 영향을 주며 약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음.

한편, ECB는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인상 속도는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현재의 데이터를 볼 때 충분하지 않아 연준보다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단행. 특히 75bp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 관련 발언으로 유로화가 한 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더불어 인플레이션은 상방 위험이, 경제는 하방 위험이 크다고 언급해 유럽 증시의 3.5% 하락 요인으로 작용.

영국의 BOE도 50bp 인상을 단행했는데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지났다고 언급.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돼 2024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BOE는 ECB나 미 연준에 비해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감안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표를 해 파운드화의 약세가 컸음. 결국 연준, ECB, BOE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공통적으로 물가는 하방 압력을 키울 것을 시사했으나,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를 감안 향후 관심은 점차 경기 침체 이슈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건설업종 강세 Vs. 반도체, 기술주 부진

테슬라(+0.55%)는 머스크의 지분 매각 소식 등에도 최근 낙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하는 등 여타 기업들과 달리 견조한 모습을 보임. 특히 주요 기관들의 지분이 이번 하락시기 증가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요인. 주택 건설업체 레나(+3.82%)는 신규 수주 가이던스 실망 속 하락 출발했으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DR호튼(+3.49%) 등 여타 주택 건설업종 동반 상승.

알리바바(-5.17%), 핀둬둬(-3.18%) 등 중국 기업들은 미국 감사 감시단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 권한을 얻었다는 소식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상장 폐지 위험을 축소 했음에도 글로벌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하락. 더불어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통제 기업에 추가한 점도 하락 요인. 웨스턴 디지털(-10.10%)은 골드만삭스가 매도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으며, 거시 경제 위축을 감안 원가이하로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소식에 마이크론(-4.67%), 엔비디아(-4.09%) 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17% 하락.

미국 소비 감소 소식으로 GM(-1.93%), 포드(-3.34%) 등 자동차 업종과 애플(-4.69%)은 물론, 아마존(-3.42%), 넷시(-4.59%), 코스트코(-4.06%), 메이시스(-3.49%), 타겟(-3.22%) 등 온, 오프라인 매장들 대부분 부진. 경기 위축시기 기업들의 비용 절감 이슈로 인튜이티브(-5.34%), 세일스포스(-3.20%), MS(-3.19%) 등 소프트웨어 업종, 알파벳(-4.43%), 메타(-4.47%) 등이 부진.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XOP) | +0.42 | 대형 가치주 ETF (IVE) | -1.93 |
| 클린테크 ETF (CTEC) | -2.50 | 중형 가치주 ETF (IWS) | -2.02 |
| 소매업체 ETF (XLY) | -1.64 | 소형 가치주 ETF (IWN) | -2.26 |
| 온라인소매 ETF (EBIZ) | -3.33 | 대형 성장주 ETF (VUG) | -3.24 |
| 미국 인프라 ETF (PAVE) | -3.35 | 중형 성장주 ETF (IWP) | -2.88 |
| 핀테크 ETF (FINX) | -5.03 | 소형 성장주 ETF (IWO) | -2.82 |
|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 -4.94 |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 -2.01 |
| 클라우드 ETF (CLOU) | -3.59 |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 -1.41 |
| 사이버보안 ETF (BUG) | -4.30 |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 -1.57 |
|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 -3.73 | 미국 국채 ETF (IEF) | +0.19 |
|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 -1.86 | 하이일드 ETF (JNK) | -0.42 |
| 바이오섹터 ETF (IBB) | -1.82 | 신흥국 채권 ETF (EMBD) | -0.21 |
| 로봇&AI ETF (BOTZ) | -3.99 | 물가연동채 ETF (TIP) | +0.02 |
| 반도체 ETF (SMH) | -3.81 |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 +0.08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1개월(%) |
|---------|----------|--------|--------|----------|
| 에너지 | 648.88 | -0.53 | +0.69 | -9.90 |
| 유틸리티 | 361.77 | -1.27 | +0.65 | +5.01 |
| 부동산 | 240.96 | -1.28 | +0.40 | +0.74 |
| 필수소비재 | 782.22 | -1.66 | -1.64 | +1.97 |
| 경기소비재 | 1,058.81 | -1.78 | -2.44 | -5.86 |
| 헬스케어 | 1,598.35 | -1.86 | -1.70 | +3.13 |
| 금융 | 562.23 | -2.01 | -2.04 | -4.38 |
| 산업재 | 830.55 | -2.45 | -1.42 | -1.32 |
| 소재 | 497.94 | -3.02 | -2.88 | -2.21 |
| IT | 2,249.46 | -3.78 | -2.04 | -3.60 |
| 커뮤니케이션 | 160.31 | -3.84 | -2.35 | -5.12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 속 중국 증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4.33%, MSCI 신흥 지수 ETF는 2.3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8.2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47% 하락. KOSPI는 1%대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연준이 최고 금리를 5.1%로 발표한 가운데 그 이상을 전망한 위원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파월 연준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으로 제한적인 하락. 그렇지만,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회하는 등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이렇듯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높아지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기에 대한 부담이 하락을 야기. 특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KOSPI는 1.60%, KOSDAQ은 0.87%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중국에 이어 미국 실물 경제지표가 둔화되자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며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ECB도 라가르드 총재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 했음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BOE도 경기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더욱 확산돼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한국 증시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연준과 ECB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 했음을 시사해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높인 점, 그리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으나, 중국의 경기 부양정책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 실제 전일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시장의 기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 더불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권을 미국 감사 감시단이 얻어 상장폐지 위험이 축소된 점, 열린 재무장관도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나 글로벌 경제 발전을 논의해 미-중 갈등 우려가 완화된 점은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대 하락 출발 후 중국 증시가 견조할 경우 낙폭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실물 경제지표 둔화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지난달 발표(mom +1.3%)나 예상(mom -0.2%)을 하회. 운송을 제외한 수치(+1.2%→-0.2%)나 운송과 가솔린 제외 수치(+0.8%→-0.2%)도 둔화.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지난달 발표(mom -0.1%)나 예상(mom +0.1%)을 하회. 공장 가동률도 79.9%에서 79.7%로 둔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23.1만 건이나 예상치인 23만 건을 하회한 21.1만 건을 기록해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줌.

12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19.4보다 개선된 -13.8을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9.9를 하회. 신규주문이 -16.2에서 -25.8로 위축되었으나 기대지수는 -7.1에서 3.8로 개선.

12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4.5나 예상치인 -0.4를 하회한 -11.2로 발표. 신규주문이 -3.3에서 -3.6으로, 재고지수가 16.5에서 3.7로 둔화.



파운드화, 덜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달러 대비 금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확산되자 하락. 특히 연준에 이어 ECB, BOE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자 경기 위축 우려가 더욱 높아진 점도 부담. 여기에 키스톤 송유관 일부 재가동 소식도 하락 요인.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하락은 제한된 가운데 천연가스가 재고가 45bcf 감소해 수요 증가에 따른 급등 소식도 하락 제한 요인.

달러화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50bp 인상이 피벗을 의미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한 때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그러나 실물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 전환. 특히 ECB와 달리 BOE는 인플레이 정점 지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에 따른 금리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 강세 요인.

국채금리는 주요 실물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 단기물은 견고한 고용시장 영향으로 상승하는 등 차별화. 특히 ECB가 50bp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라가르드 ECB 총재가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유로존 단기물이 상승했으며, 이에 미국 단기물도 견고.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곡물은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제 악화가 수출 감소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하기도 했으나, 브라질 지역의 기름이 심화되었다는 평가 속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14%, 철근은 2.58% 상승.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76.11 | -1.46 | +6.56 | Dollar Index | 104.641 | +0.84 | -0.13 |
| 브렌트유 | 81.21 | -1.69 | +6.76 | EUR/USD | 1.0623 | -0.55 | +0.63 |
| 천연가스 | 6.97 | +7.85 | +16.32 | USD/JPY | 137.84 | +1.74 | +0.86 |
| 금 | 1,787.80 | -1.75 | -0.82 | GBP/USD | 1.2174 | -2.03 | -0.49 |
| 은 | 23.31 | -3.53 | +0.17 | USD/CHF | 0.9288 | +0.47 | -0.88 |
| 알루미늄 | 2,384.00 | -2.45 | -4.75 | AUD/USD | 0.6698 | -2.42 | -1.05 |
| 전기동 | 8,293.50 | -2.62 | -2.92 | USD/CAD | 1.3670 | +0.90 | +0.55 |
| 아연 | 3,160.00 | -2.42 | -2.36 | USD/RUB | 64.4030 | -0.21 | +1.86 |
| 옥수수 | 653.50 | +0.54 | +1.79 | USD/BRL | 5.3142 | +0.46 | +1.87 |
| 밀 | 757.25 | +1.13 | +1.54 | USD/CNH | 6.9908 | +0.69 | +0.42 |
| 대두 | 1,476.75 | -0.64 | -0.99 | USD/KRW | 1,303.10 | +0.52 | -1.13 |
| 커피 | 171.75 | +2.14 | +8.22 | USD/KRW NDF1M | 1,318.21 | +1.81 | +0.13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3.446 | -3.11 | -3.56 | 스페인 | 3.161 | +18.90 | +33.60 |
| 한국 | 3.372 | -2.80 | -16.20 | 포르투갈 | 3.073 | +19.00 | +33.40 |
| 일본 | 0.256 | +0.40 | +0.10 | 그리스 | 4.178 | +15.40 | +32.00 |
| 독일 | 2.083 | +14.30 | +26.30 | 이탈리아 | 4.166 | +30.00 | +47.1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